

알리바바 마윈 회장, Tmall 내 한국관 오픈 위해 방한

News

-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회장 마윈이 최경환 경제 부총리와 18일 면담
- 마윈 회장은 향후 중국에서 2-3억명 가량의 중산층 인구가 떠오를 것이며 해외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힘.
- 한국관 사이트는 <http://korea.tmall.com> 이며 현재는 업데이트 중

Implication

- 최 부총리는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마 회장과 두차례 만나 티몰에 한국관 개관을 요청한 적이 있음
- 티몰 한국관은 한국 농식품, 공산품은 물론 관광상품, 서비스 상품까지 망라하는 한국상품 판매 전용관
- 알리바바 플랫폼에서 국가관이 운영되는 것은 이번 한국관이 최초
- 더불어 마윈 회장은 한국이 알리바바 글로벌 물류거점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힘
- 알리바바 그룹의 물류기업인 '차이냐오(cainiao)'는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제품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한국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Call

- 1 2014년부터 한국 셀러를 유치하기 위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들(아마존, 알리바바, JD.com 등)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
- 2 이에 플랫폼 업체보다는 콘텐츠 업체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
- 3 더불어 Cross-border E-commerce 활성화에 따라 운송, 창고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자료: 기획재정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오린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N.R. (Not Rated)	+20% 이상 기대 -20% ~ 20% 기대 -20% 이하 기대 등급보류	2015년 2월 2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4단계 (Strong Buy / Buy / Marketperform / Sell)에서 3단계 (Buy / Hold / Sell)로 변경